

슈퍼바이저 애착 전략 척도(Supervisee Attachment Strategies Scale) 국내 타당화 연구*

신 성 만¹⁾

박 영 근^{1)*}

김 윤 희²⁾

박 명 준¹⁾

¹⁾한동대학교

²⁾경북대학교

본 연구는 Menefee, Day, Lopez와 McPherson(2014)이 슈퍼바이저에 대한 슈퍼바이저의 애착 전략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슈퍼바이저 애착 전략 척도(SASS)를 국내 슈퍼바이저들을 대상으로 타당화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원척도의 22문항을 번안 및 역번안 작업을 거친 후 척도를 구성하였다. 자료 수집은 최근 2년 동안 한 명 이상의 슈퍼바이저에게 최소 3회 이상 슈퍼비전을 받은 경험이 있거나 현재 받고 있는 전국의 상담자 228명(남자 32명, 여자 195명, 성별무응답 1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자료를 바탕으로 SASS 요인구조의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해 탐색적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원척도와 동일하게 2개의 하위요인(회피, 거절)이 추출되었고 내적일치도 역시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SASS는 작업 동맹 척도(WAI-T), 슈퍼비전 만족도(SSQ)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역할갈등 역할모호 척도(RCRAI)와 친밀관계 경험척도(ECR)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SASS는 유의한 공인, 수렴타당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SASS의 각 하위요인이 독립적으로 슈퍼바이저의 성인 애착을 설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과 제한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슈퍼비전, 슈퍼바이저, 슈퍼바이지, 애착 전략, SASS

* 이 연구는 한동대학교 교내연구지원사업 제20150115호에 의한 것임.

† 교신저자 : 박영근, 한동대학교 상담심리학과, 포항시 남구 상공로 46번길 13

Tel : 054-276-9307, E-mail : pyk9125@gmail.com

상담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고 보편화됨에 따라 상담자의 전문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손은정, 유성경, 심혜원, 2003). 상담자의 전문성은 내담자의 복지를 보호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담이 대중화될수록 그 중요성은 커진다(Aasheim, 2012). 따라서 상담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인 슈퍼비전은 상담자 교육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수련방법이 되었다(Bernard & Goodyear, 2004). 슈퍼비전은 초보상담자가 전문상담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감독하는 것으로(Holloway & Neufeldt, 1995; Watkins, 1998), 유능한 상담자를 양성하는 것과 내담자의 안녕과 복지를 보장하도록 돕는 데 목적을 둔다(Bernard & Goodyear, 2004).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상담 전문가 자격 규정에서 슈퍼비전을 필수로 받도록 하고 있다(한국상담심리학회, 2013; 한국상담학회, 2015).

슈퍼비전의 중요성에 따라 슈퍼비전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상담자의 전문성과 슈퍼비전 관계를 밝힌 연구(Wiley & Ray, 1986)에서는 슈퍼비전을 받은 상담자가 슈퍼비전을 받지 않은 상담자보다 발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여(지승희, 주영아, 김영혜, 2014), 슈퍼비전이 상담자의 전문성을 갖추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밝혔다. 또한 슈퍼비전의 성과를 높이는 요인을 밝힌 연구(Bernard & Goodyear, 2004; Ellis, 1991; Ladany, Friedlander, & Nelson, 2005)에서는 공통적으로 슈퍼비전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을 슈퍼비전 관계로 보고하였다(최한나, 김창대, 2008; Bernard & Goodyear, 2004; Holloway, 1995; Skovholt & Ronnestad, 1992; Stoltenberg & Delworth, 1987; Ward & House, 1998). 이와 같

은 연구결과를 통해 상담자의 전문성은 슈퍼비전을 통해 강화할 수 있고, 슈퍼비전의 목표 달성은 슈퍼비전 관계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슈퍼비전 성과는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지의 관계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Efstation, Patton, & Kardash, 1990) 슈퍼비전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으면 효과적인 슈퍼비전이 진행될 수 없다(Bradley & Ladany, 2001; Holloway, 1995). 이러한 슈퍼비전 관계는 슈퍼비전의 형태나 방법과 상관없이 슈퍼바이지의 성장에 핵심요소이며(Holloway, 1987; Fisher, 1989; Ronnestad & Skovholt, 1993) 긍정적인 슈퍼비전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Worthen & McNeill, 1996).

슈퍼비전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Bordin(1983)의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지의 작업동맹(Working Alliance) 개념을 중심으로 수행된 연구가 대부분이다(Bordin, 1983; Efstation et al., 1990; Holloway, 1992). 이들 연구에서는 슈퍼비전 작업동맹은 슈퍼바이지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상담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밝혔다(Bordin, 1983; Holloway, 1992; Holloway & Neufeldt, 1995; Lainas, 2014; Lambert & Barley, 2001). 이러한 연구결과는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지의 관계가 잘 형성되면 슈퍼비전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고, 슈퍼바이지는 슈퍼비전을 통해 배우게 된 점들을 자신이 상담하고 있는 상담과정에 긍정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슈퍼비전 관계의 중요성에 따라 슈퍼비전 관계 연구는 슈퍼비전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슈퍼바이지의 역할 어려움에 대한 연구로 확대되었다(Friedlander, Keller, Peca-Baker

& Olk, 1986). Olk와 Friedlander(1992)는 슈퍼비전 관계에서 슈퍼바이지가 겪는 어려움을 역할갈등(role conflict)와 역할모호(role ambiguity)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역할갈등은 슈퍼바이지에게 학생이나 상담자, 동료로서 기대되는 역할이나 행동이 다른 역할과 상충되거나 슈퍼바이저의 지시가 슈퍼바이저의 개인적인 판단과 상충되는 상황을 말한다(Olk & Friedlander, 1992). 예를 들면 슈퍼바이저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학생의 역할과 자율성을 보여줘야 하는 상담자의 역할이 서로 반대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Olk & Friedlander, 1992). 역할모호는 평가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지 확신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Biddle, 1979; Olk & Friedlander, 1992). 이러한 역할모호는 슈퍼비전에서 슈퍼바이저가 슈퍼바이지에게 어떤 기대를 하는지, 슈퍼바이지는 그 기대를 어떻게 충족시켜야 하는지, 슈퍼바이저에게 자신이 어떻게 평가될 것인지 등이 확실하지 않을 때 발생하게 된다(Olk & Friedlander, 1992). 예를 들면, 슈퍼비전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거나 자신이 말하는 것들이 어떻게 평가될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슈퍼비전 관계에서 생기는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것은 슈퍼비전을 원활하게 진행시키고 내담자의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하다(Aasheim, 2012). 이에 대해 Ladany와 Friedlander(1995)는 슈퍼비전 관계가 협력적이면, 즉 작업동맹 수준이 높으면 슈퍼바이지의 역할갈등과 역할모호가 감소하는 것을 보고하였다(손은정, 유성경, 강지연, 임영선, 2006; Ladany & Friedlander, 1995). 이는 협력적인 슈퍼비전 관계는 작업동맹 수준이 높고 슈퍼바이지의 역할갈등과 역할모호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효율적인 슈퍼비전이 가능하고 나아가

내담자 복지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슈퍼비전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성인 애착을 살펴본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다(Pistole & Watkins, 1995; Riggs & Bretz, 2006; White & Queener, 2003). 애착(attachment)은 영아와 양육자 사이에 형성되는 정서적 유대를 의미하는 것으로(Bowlby, 1988), 안정형, 회피형, 불안/양가형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Ainsworth, Blehar, Waters, & Wall, 1978). 이와 같이 영아기에 형성된 애착 유형은 성인기에 도 지속되며(Hamilton, 2000) 성인 애착 유형도 영아 애착 유형과 동일한 3가지(안정형, 회피형, 불안/양가형)로 분류된다(Hazan & Shaver, 1987). 또한 Bartholomew와 Horowitz(1991)는 어린 시절의 애착경험을 회피(avoidance)와 의존(dependence)이라는 차원으로 구분하고 자신(self)과 타인(other)을 각각 어떻게 표상하고 있는가에 따라 '안정된 유형(secure)', '몰두된 유형(preoccupied)', '거부적인 유형(dismissing)', '두려운 유형(fearful)'으로 구분하였다. 좀 더 최근에는 성인 애착을 회피(avoidance)와 불안(anxiety) 차원으로 제시하기도 한다(Brennan, Clark, & Shaver, 1998; Chen & Mallinckrodt, 2002). 이처럼 성인 애착의 경우 애착 유형 분류가 복잡하고, 어느 모델이 성인 애착을 설명하는 데 적합한지에 대한 확실적인 자료는 없다.

하지만 성인 애착과 관련된 또 다른 최근 연구에서는 애착을 특질(trait)이 아닌 상태(state)로 개념화하여 인생의 주요한 사건과 다양한 맥락적 요인에 영향을 받아 변화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즉, 영아기에 형성된 애착 유형과는 독립적으로 성인 애착 유형을 형성할 수 있고(Kirkpatrick & Hazan, 1994), 특정 조

건이나 상황에 따라 불안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애착 행동전략을 다르게 활성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Baldwin, Keelan, Fehr, Enns, & Koh-Rangarajoo, 1996). 따라서 본 연구는 슈퍼바이지가 영아기에 형성된 애착 유형과 달리 슈퍼비전 관계와 같은 특정한 조건에서 독립적인 성인 애착 행동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와 관련하여 Bennett, BrintzenhofeSzoc, Mohr와 Saks(2008)의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성인 애착(general attachment)'과 '슈퍼바이저에 대한 애착(supervision-specific attachment)' 중에서 작업동맹을 예측하는 변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였다. 일반적인 성인 애착은 작업동맹을 예측하지 못했으나 슈퍼바이저에 대한 애착 중에서도 회피 애착이 작업동맹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nnett et al., 2008). 이는 일반적인 대인관계에서의 애착 전략과 특수한 관계에서의 애착 전략은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성인 애착 전략과 슈퍼비전 관계에 대한 또 다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안정 애착을 가진 슈퍼바이지가 불안정 애착을 가진 슈퍼바이지보다 긍정적인 라포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Epps, 1999). 반면, 불안 애착 전략을 사용하는 슈퍼바이지는 과도하게 슈퍼바이저에게 의지하려고 하여 부적절하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회피 애착 전략을 사용하는 슈퍼바이지는 슈퍼바이저의 피드백을 거부하거나 문제를 감추고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였다(Neswald-McCalip, 2001). 이와 같이 슈퍼바이지의 애착 전략에 따라 슈퍼비전 관계에서 나타나는 슈퍼바이지의 태도는 매우 다름을 알 수 있다. 성인 애착 전략은 슈퍼비전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므로(Pistole &

Watkins, 1995; Watkins, 1995) 슈퍼비전 관계를 살펴보려면 슈퍼바이지의 성인 애착 전략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스승-제자, 상담자-내담자, 직장동료, 평가자-평가받는 사람과 같이 다양한 역할이 존재하는 슈퍼비전 관계의 특수성은 초기 애착 유형과 달리 독립적인 성인 애착 유형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본 연구에서는 슈퍼비전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는 성인 애착 전략 측정도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슈퍼비전 애착 관계에 대한 연구(Foster, Lichtenberg, & Peyton, 2007)에서는 슈퍼비전을 시작하기 전에 슈퍼바이지의 불안정 애착을 식별할 수 있는 측정도구가 있다면 슈퍼비전 과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슈퍼바이지가 슈퍼바이저에게 불안정 애착을 형성할 경우 안정 애착을 형성한 슈퍼바이지보다 상담가로서 성장이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Foster et al., 2007).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 최근에는 슈퍼비전에 영향을 미치는 슈퍼바이지의 애착 전략을 진단하는 측정도구(Supervisee Attachment Strategies Scale: SASS)가 개발되었다(Menefee, Day, Lopez, & McPherson, 2014). 이 척도는 슈퍼바이지가 슈퍼바이저에게 어떤 유형의 성인 애착 전략을 쓰는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2요인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요인은 슈퍼바이저에 대한 회피(avoidance)와 거절(rejection)이 도출되었다. Menefee 등(2014)은 기존의 성인 애착 척도(Brennan et al., 1998; Gunn & Pistole, 2012)를 참고하여 슈퍼바이지의 애착 전략 척도를 개발하였는데, 이들은 선행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슈퍼바이지의 회피와 불안 영역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였다. 그 중에서도 슈퍼바이저로부터 거절당

하는 것을 걱정하는 불안으로 척도를 구성 하면서 불안 영역을 거절이라고 명명하였다 (Menefee et al., 2014).

또한 Menefee 등(2014)은 슈퍼바이지 애착 전략 척도(SASS)를 개발하면서 슈퍼비전 관계가 일반적인 돌봄 관계와 다르게 슈퍼바이지의 진로에 영향을 주는 목표와 학습 목적을 갖는 특수 환경에서의 관계라는 점을 고려하였다(Menefee et al., 2014). 슈퍼비전 관계에서 슈퍼바이지는 직무의 어려움을 겪을 때 슈퍼바이저에게 의지해서 도움을 받는 동시에 슈퍼바이저에게 자신의 전문성을 보여주어 평가 받아야 하는 역할이 공존한다. 슈퍼바이저도 슈퍼바이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직적 위치에 있으면서 동시에 상담 영역에 종사하는 동료로서 수평적 위치에 있게 되는 등 서로 간에 복합적으로 독특한 관계를 맺게 된다 (Aasheim, 2012). 이러한 슈퍼바이지 애착 전략 척도(SASS)의 개발 과정을 볼 때, 기존연구 (Baldwin et al., 1996)와 유사하게 슈퍼비전 관계와 같은 특정한 조건에서 독립적인 성인 애착 행동전략을 구사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Menefee 등(2014)의 연구에서는 슈퍼바이지 애착 전략 척도(SASS)가 역할모호, 역할갈등과는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슈퍼비전 만족도와는 높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지금까지 언급한 것처럼 성인 애착이 슈퍼비전의 독특한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는 한국의 상담현장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성인 애착과 슈퍼비전 관계에 대한 국내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김동민, 2012; 박진희, 유미숙, 2011). 이와 같은 상황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슈퍼비전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슈퍼바이지의 애착 전략을 구체적으로 측

정할 수 있는 적절한 평가 도구가 없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까지 슈퍼비전의 독특한 관계에서 애착 전략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는 Menefee 등(2014)이 개발한 슈퍼바이지 애착 전략 척도(SASS)가 유일하다. 그럼에도 이 척도는 서구 문화를 기반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관계를 중요시하는 한국 문화에서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내담자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Menefee 등(2014)이 개발한 슈퍼바이지 애착 전략 척도(SASS)를 한국 실정에 맞게 타당화하고자 한다.

방 법

문항의 번안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 1인이 문항 번역을 한 후 연구자들 간의 협의를 통해 문항을 수정하여 초안을 구성하였다. 원칙도를 번안하는 과정에서 원칙도에서 쓰인 단어들 중 "Sounding board"가 국문으로 정확히 번안되지 않아 연구자들 간의 논의를 하였다. Sounding board의 의미 자체는 "반향판"이지만 문항의 의미를 전달하는데 맞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조력자"로 초기 번안을 하였다. 이후 연구자들 간 2차례의 추가논의 후 합의한 결과 "조연자"가 슈퍼비전 맥락에서 의미를 잘 전달하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마지막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초항 문항을 확정지었다. 다음으로 석사 학위를 소지한 통번역 전문가 1인과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상담심리학 전공자 1인이

번안된 문항을 역번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원 문항과 역번안된 문항간 사이의 의미가 동일 한지 확인하기 위해 통번역 전문가 2인과 원 어민 1인, 미국 상담심리 박사과정 1인의 평 정과정을 거쳤다. 평정척도는 7점 척도를 사 용하였으며 4인의 평정자들은 원문항과 역번 안된 문항의 내용 동등성을 비교하여 평정하 였다. 그 결과 전체 평점이 5점 이상으로 나 타나 내용 동등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 였다. 추가적으로 문항을 이해하는데 어려움 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척도개발 경험이 있 는 국어학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1인의 검토 를 거친 후 최종 번역본을 확정하였다.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 자료 수집은 여러 차례에 걸쳐 서 시행되었다. 최근 2년 동안 수련기관에서 또는 개인적으로 한 명 이상의 슈퍼바이저에 게 최소 3회 이상 슈퍼비전을 받은 경험이 있 거나, 현재 받고 있는 상담자를 대상으로 사 례발표회 및 학술대회에서 대상자들을 수집하 였으며 추가적으로 서울, 경기, 대전, 충북, 부 산 지역 내 상담센터에 우편을 통해 대상자들 을 수집하였다. 배부된 250여부의 설문지 중 228부가 수거되었으며 각 설문지에서 무응답 이 많거나 문항 반응이 한 곳에 몰려 있는 척 도는 상관분석에서 해당 척도만 제외하였다. 성별은 무응답자 1명을 제외하고 여성 슈퍼바 이저(195명)가 남성 슈퍼바이저(32명)에 비해서 약 6배 정도 많았다. 연령은 평균 41.37세 (SD=9.15)였다. 응답자들 중 석사(71.5%)가 가 장 많은 응답을 보였다. 상담 경력은 2년 미 만(34.2%)이 가장 많게 응답하였다. 슈퍼바이 저의 성별은 여성 슈퍼바이저(157명)가 남성

표 1. 대상자들 특성

구분	항목	빈도(%)
성별	남	32(14)
	여	195(85.5)
연령	20대	24(10.5)
	30대	69(30.3)
	40대	81(35.5)
	50대	48(21.1)
	60대 이상	1(4)
최종학력	학사	8(3.5)
	석사	163(71.5)
	박사	57(25)
선호하는 상담이론	정신분석(정신역동)	64(28.1)
	인본주의(인간중심)	99(43.4)
	실존치료	20(8.8)
	인지행동치료	74(32.5)
	게슈탈트	40(17.5)
	현실치료	32(14)
	가족치료	46(20.2)
	통합상담	73(32)
	기타	28(12.3)
	상담경력	2년 미만
2-4년 사이		43(18.9)
4-6년 사이		44(19.3)
6-8년 사이		28(12.3)
8년 이상		34(14.9)

주. N = 228. 항목별로 무응답자는 포함하지 않 았음. 선호하는 상담 이론 항목은 중복선택 가능 한 문항임.

슈퍼바이저(69명)에 비해서 약 2.25배 정도 많 았다. 자세한 사항은 표 1과 같다.

측정도구

슈퍼바이지 애착 전략 척도(Supervisee Attachment Strategies Scale; SASS)

본 연구에서 타당화를 위해 사용된 슈퍼바이지 애착 전략 척도는 슈퍼바이저에 대한 슈퍼바이지의 성인 애착이 어떠한지를 측정하기 위해 Menefee 등(2014)이 개발한 척도이다. 슈퍼바이지 애착 전략 척도는 회피(13문항), 거절(9문항)의 2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6점 Likert 척도로(1 = 전혀 그렇지 않다, 6 = 매우 그렇다) 10개의 역문항(1, 5, 9, 10, 11, 13, 15, 18, 19, 21)을 포함한 총 22문항으로 되어 있다. 문항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할수록 슈퍼비전 관계에서 불안정 애착 전략이 높음을 의미한다. Menefee 등(2014)의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회피 .94, 거절 .88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전체 .87, 회피 .87, 거절 .84이었다.

역할갈등 역할모호 척도(Role Conflict Role Ambiguity Inventory; RCRAI)

역할갈등 역할모호 척도는 Olk와 Friedlander(1992)이 개발한 척도로 슈퍼바이지가 슈퍼비전에서 느끼는 역할 갈등이나 역할 모호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손은정 등(2006)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역할 갈등(13문항), 역할 모호(16문항)의 2개 하위요인이고 총 29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Likert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로 되어 있다. 문항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할수록 역할 갈등이나 역할 모호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전체 .91, 역할 갈등 .81, 역할 모호 .89이었다.

작업동맹 척도(Working Alliance Inventory - Trainee; WAI-T)

작업동맹 척도는 Bordin(1983)의 작업동맹 3가지 요소를 반영하여 슈퍼바이지의 작업동맹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Bahrlick(1989)이 개발한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손은정 등(2006)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목표에 대한 동의(12문항), 과제에 대한 합의(12문항), 정서적인 유대(12문항)의 3개 하위요인이고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7점 Likert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았다, 7 = 항상 그랬다)로 되어 있다. 문항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할수록 작업동맹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전체 .95, 목표에 대한 동의 .83, 과제에 대한 합의 .90, 정서적인 유대 .88이었다.

슈퍼비전 만족도 척도(Supervision Satisfaction Questionnaire; SSQ)

슈퍼비전 만족도 척도는 Larsen, Attkisson, Hargreaves와 Nguyen(1979)가 개발한 내담자용 만족도 척도를 Ladany, Hill, Corbett과 Nutt(1996)가 슈퍼비전에 맞게 수정한 후 슈퍼비전에 맞게 타당화한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홍지영(2008)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8문항으로 구성된 1요인 척도이고, 4점 Likert 척도(문항별로 구체적 범위의 표기를 다르게 사용하였다. 예: 1번 문항 '매우 좋지 않았다'부터 '매우 좋았다', 2번 문항 '전혀 그렇지 않았다'부터 '매우 그렇다', 8번 문항 '절대 다시 받고 싶지 않다'부터 '꼭 다시 받고 싶다.')로 되어 있다. 문항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할수록 슈퍼바이지의 슈퍼비전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92이었다.

친밀관계 경험 척도(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 Scale; ECR)

친밀관계 경험 척도는 Brennan 등(1998)이 개발한 척도로 일반적인 친밀 관계에서 성인 애착을 측정하는 도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김성현(2004)이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불안(18문항), 회피(18문항)의 2개 하위요인이고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점 Likert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7 = 항상 그렇다)로 되어 있다. 문항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할수록 친밀 관계에서 불안정 애착 전략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전체 .92, 불안 .92, 회피 .87이었다.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표본으로 수집된 228명의 자료는 교차타당도(cross validation) 검증을 위해 통계패키지에서 제공하는 무작위 표본추출방법을 이용하여 114명씩 두 집단(표본 1, 2)으로 구분한 후 탐색적 요인분석(표본 1)과 확인적 요인분석(표본 2)을 실시하였다. 이후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척도 간 상관분석으로 공인타당도와 수렴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결측치 처리방식은 다음과 같다. 상관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은 대응별 결측값 제외 방식(pairwise deletion)을 사용하였고,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는 FIML(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방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통계프로그램은 SPSS 18.0과 AMOS 18.0이다.

결 과

구인타당도

본 연구에서는 KMO 검사 결과 0.88,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은 $p < .01$ 로 요인분석을 위한 표본 적합성이 성립한 것으로 나타났다(Tabachnick & Fidell, 2001).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각 변수들이 다변량 정규분포를 만족하는지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변수들의 왜도가 .01에서 1.67에 분포했으며 첨도는 -1.28에서 4.8에 분포하였다. 따라서 각각 2와 7보다 작았기 때문에 다변량 정규분포를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West, Finch, & Curran, 1995).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사용하여 모형을 추정하였고 요인의 회전은 사각회전 방법 중 하나인 프로맥스($\kappa = 4$)를 사용하였다. SPSS에서는 축소상관행렬의 고유치 값을 제공해주지 않으므로 요인의 수는 적합도 지수(RMSEA)와 해석가능성을 고려하여 판단하기로 결정하였다.

Menefee 등(2014)의 연구에서 슈퍼바이지 애

표 2. 탐색적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도 지수

모형	χ^2	df	p	RMSEA
1요인 모형	516.646	209	.000	.11
2요인 모형	294.151	188	.000	.07
3요인 모형	242.119	168	.000	.06

착 전략 척도는 2요인 구조로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1요인부터 3요인까지의 탐색적 요인 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2요인 모델을 중심 분석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으로 적합도와 해석 가능성을 비교하기 위해 분석결과, 2요인 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가 1요인부터 3요인까지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 장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3. SASS 척도의 각 문항에 대한 내용 및 요인계수

문항번호	내용	회피	거절
문항 11*	나는 슈퍼바이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심리학 관련 업무에 종사함에 자부심을 느낀다.	.81	.15
문항 19*	나는 슈퍼바이저가 언제든지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는다.	.74	.25
문항 15*	슈퍼바이저와의 관계는 내가 훈련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를 다루는데 도움이 된다.	.70	.12
문항 7	나는 내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 슈퍼바이저를 의지하는 것이 어렵다.	.69	.35
문항 18*	내가 새로운 것들을 시도할 수 있도록 슈퍼바이저가 격려해준다고 느낀다.	.66	.17
문항 9*	나의 슈퍼바이저는 내가 필요로 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인다.	.63	.10
문항 13*	내가 전문성을 갖추는데 있어서 슈퍼바이저가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	.62	.16
문항 10*	나는 수련기관에서 슈퍼바이저에게 훈련받는 동안 그(녀)가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61	.28
문항 5*	나는 슈퍼바이저를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현명한 조언자라고 생각하고 의지한다.	.56	.19
문항 4	나는 수련감독관계가 나의 수련성과를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가치가 별로 없다고 본다.	.51	.11
문항 21*	나는 훈련받는 것이 힘들 때에는 도움을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슈퍼바이저를 찾는다.	.51	.21
문항 1*	나는 의지할 수 있는 경험자로서 슈퍼바이저를 찾는다.	.37	.03
문항 3	슈퍼바이저는 내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만나기가 어렵다.	.29	.05
문항 14	나는 슈퍼바이저가 나를 좋아하는지 여부를 확실히 알고 싶다.	-.09	.70
문항 16	나는 슈퍼바이저가 나를 거절할까봐 걱정한다.	.42	.66
문항 8	나는 슈퍼바이저의 기대치에 도달하지 못 할까봐 걱정한다.	0	.65
문항 20	나는 나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다고 느끼는지 슈퍼바이저가 알아차릴까봐 걱정한다.	.16	.65
문항 22	슈퍼바이저가 나에게 잘하고 있다고 안심시켰지만 여전히 나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느낀다.	.31	.64
문항 2	나는 슈퍼바이저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걱정한다.	.29	.62
문항 17	나는 슈퍼바이저가 내가 수행한 업무를 인정한다는 점을 자주 재확인 받을 필요가 있다.	.10	.55
문항 6	나는 슈퍼바이저에게 교정적 피드백을 받으면 나 자신에 대해 기분이 나빠진다.	.41	.51
문항 12	슈퍼바이저가 나에게 잘 하고 있다고 안심시켜주어도 나는 그것을 믿기가 어렵다.	.43	.44
	설명변량	26.3	12.3
	누적설명변량	26.3	38.6

주. * 역문항

선행연구와 해석가능성을 고려해볼 때 슈퍼바이지 애착 전략 척도는 2요인 구조가 가장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2요인 모형의 요인계수 행렬은 표 3에 제시하였다. 하위요인별로 보면 회피 영역이 총 13문항으로 26.3%의 설명량을 보였으며 거절 영역은 총 9문항으로 12.3%의 설명량을 보였다. 원척도와 비교해볼 때 회피나 거절 요인에 속하는 측정변수들은 동일하였지만 요인계수의 크기는 미국집단에 비해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1번과 3번 문항의 요인계수가 .4보다 낮게 나타났지만, 문항의 요인계수가 대부분 .30 이상이면 요인을 적절히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엄명용, 조성우, 2005), 해당문항이 회피 요인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거하지 않고 원척도의 요인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발견한 슈퍼바이지 애착 전략 척도의 2요인 구조가 다른 표본에서

교차타당도가 적용되는지 검토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무선적으로 나눈 표본 중 114명의 타당화(표본2) 자료를 사용하였다.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두 가지 진술형태의 문항들이 함께 포함될 경우, 심리적 평정 척도의 신뢰도가 종종 감소되고, 척도의 요인 구조가 긍정문항과 부정문항을 반영하는 서로 다른 요인으로 밝혀지는 등의 체계적인 편파(systematic bias)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방법효과를 통제해 줄 필요가 있다(Motl & DiStefano, 2002; 최수미, 조영일, 2013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 사용한 슈퍼바이지 애착 전략 척도는 12개의 정문항과 10개의 역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역문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방법효과를 통제해 주기 위해 역문항 간 오차 공분산을 포함시켜준 후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1번 문항에 대한 요인계수는 .12로 낮게 측정되었고, 모형의 적합도는 $\chi^2 = 290.77, df = 164, p < .001, TLI = .811, CFI = .877, RMSEA = .083[.067, .098]$ 으로 나타났다. 비록 CFI와 TLI가 높은 수준은 아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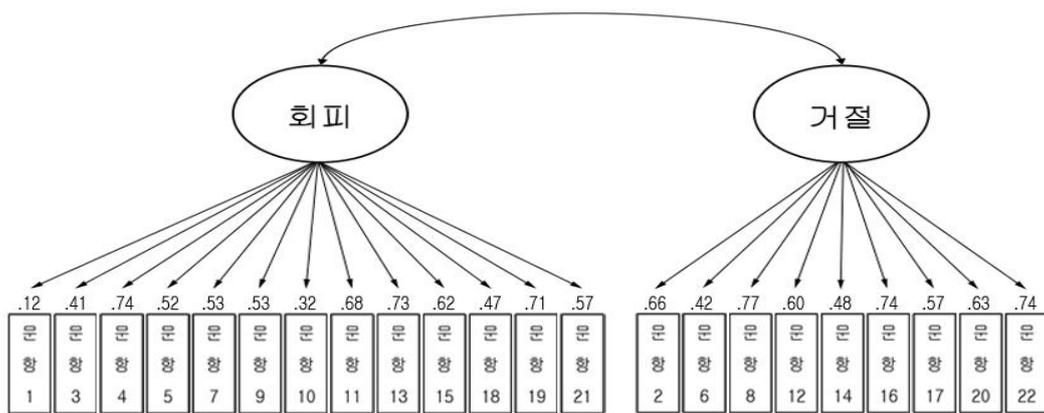


그림 1. 2요인 역문항 상관관계 모형

주. 역문항에 대한 오차공분산을 포함시켜주었음.

만, 잠재변인을 구인하는 측정변인의 수가 증가할수록 적합도 지수가 작아진다는 선행연구(Nasser & Takahashi, 2003; Tanaka, 1993)와 RMSEA가 수용 가능한 수준임을 고려할 때 2개의 애착 전략으로 자료를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자세한 결과는 그림 1에 제시하였다.

분석을 시행하였다. 표 4에 정리된 것과 같이 하위요인들이 각각 독특한 측면을 측정하기 때문에 슈퍼바이지 애착 전략 척도의 하위요인간의 상관은 낮게($r = .26, p < .01$)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 결과의 상관계수($r = .30, p < .01$)와 크게 다르지 않다(Menefee et al., 2014).

이해타당도

타당도 검증을 위해 이해타당도(nomological validity)를 확인하였다. 먼저 슈퍼바이지 애착 전략 척도의 하위요인 점수가 성별, 슈퍼바이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독립 표본 t검정을 시행하고 학력, 상담경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시행하였으나 유의한 결과는 없었다. 따라서 다른 인구학적 요인으로 인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보고 상관

공인타당도

공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슈퍼바이지 애착 전략 척도와 작업동맹 척도, 슈퍼비전 만족도 척도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특히 공인타당도를 검증하는데 있어 작업동맹 척도와 슈퍼비전 만족도 척도를 선정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Epps, 1999; Pistle & Watkins, 1995; Watkins, 1995)에서 슈퍼바이지의 애착 전략이 슈퍼비전 관계인 작업동맹

표 4. SASS와 각 척도들의 하위영역 평균, 표준편차, 상관관계

변수	1	2	3	4	5	6	7	8	M	SD
1. SASS 회피	1								32.3	9.16
2. SASS 거절	.26**	1							25.1	7.18
3. RCRAI 갈등	.45**	.43**	1						32.2	7.16
4. RCRAI 모호	.55**	.43**	.75**	1					37.4	9.23
5. WAI-T	-.73**	-.36**	-.58**	-.73**	1				183.4	26.53
6. SSQ	-.68**	-.21**	-.46**	-.59**	.74**	1			25.2	4.09
7. ECR 회피	.25**	.22**	.27**	.31**	-.29**	-.24**	1		61.1	11.07
8. ECR 불안	.13	.60**	.29**	.40**	-.32**	-.18**	.36**	1	48.2	13.73

** $p < .01$

주. 1. SASS 회피: 슈퍼바이지 애착 전략 회피요인, 2. SASS 거절: 슈퍼바이지 애착 전략 거절요인, 3. RCRAI 갈등: 역할갈등 역할모호 갈등요인, 4. RCRAI 모호: 역할갈등 역할모호 모호요인, 5. WAI-T: 작업동맹, 6. SSQ: 슈퍼비전 만족도, 7. ECR 회피: 친밀관계 경험 회피요인, 8. ECR 불안: 친밀관계 경험 불안요인

과 슈퍼비전 결과에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원저자(Menefee et al., 2014)가 작업동맹 척도와 슈퍼비전 만족도 척도를 사용하여 공인타당도를 검증한 점을 본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반영하였다. 슈퍼바이저 애착 전략 척도의 두 하위요인과 작업동맹 척도의 세 하위요인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에 앞서 작업동맹 척도의 하위요인간의 상관관계를 먼저 확인하였다. 작업동맹 척도의 세 하위요인간의 상관관계는 서로 높은 상관관계($r > .82$)로 나타나 작업동맹 척도의 하위요인별로 상관관계를 보지 않고 작업동맹 척도의 총합과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하였다. 표 3에서 정리된 것처럼 회피 영역은 각각 작업동맹($r = -.73, p < .01$), 슈퍼비전 만족도($r = -.68, p < .01$)와 부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거절 영역은 각각 작업동맹($r = -.36, p < .01$), 슈퍼비전 만족도($r = -.21, p < .01$)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원척도(Menefee et al., 2014)와 동일한 것이다. 이는 슈퍼바이저 애착 전략 척도 하위요인의 수준에 따라 작업동맹과 슈퍼비전 만족도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자세한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수렴타당도

수렴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슈퍼바이저 애착 전략 척도(SASS)의 두 하위요인과 역할갈등 역할모호 척도(RCRAI)와 친밀관계 경험 척도(ECR) 하위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공인타당도와 마찬가지로 원저자(Menefee et al., 2014)는 두 척도를 사용하여 타당도를 검증하였고, 원저자가 밝힌 결과가 한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

구결과, 슈퍼바이저 애착 전략 척도(SASS)의 회피는 역할갈등 역할모호 척도(RCRAI)의 역할갈등($r = .45, p < .01$) 및 역할모호($r = .55, p < .01$), 친밀관계 경험 척도(ECR)의 회피($r = .25, p < .01$)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면에 친밀관계 경험 척도(ECR)의 불안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어서 슈퍼바이저 애착 전략 척도(SASS)의 거절과 역할갈등 역할모호 척도(RCRAI)의 역할갈등($r = .43, p < .01$), 역할모호($r = .43, p < .01$)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친밀관계 경험 척도(ECR)의 회피($r = .22, p < .01$)와 불안($r = .60, p < .01$)과도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슈퍼바이저 애착 전략 척도(SASS)가 역할갈등 역할모호 척도(RCRAI)의 역할모호와 역할갈등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친밀관계 경험 척도는 슈퍼바이저 애착 전략의 회피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거절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수렴타당도가 확인되었다. 자세한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Menefee 등(2014)이 개발한 슈퍼바이저 애착 전략 척도(SASS)가 국내 슈퍼바이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한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원저자의 동의를 얻은 후 슈퍼바이저 애착 전략 척도(SASS)의 문항을 번역-역번역 및 평정 과정을 거쳐 한국어로 번안하였다. 이후 번안된 슈퍼바이저 애착 전략 척도(SASS)가 원척도와 동일한 요인구조 및 적절한 타당도와 신뢰도를 보이는지 확인하였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인타당도 검증을 위한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슈퍼바이지 애착 전략 척도(SASS)는 원척도(Menefee et al., 2014)와 동일하게 2개의 하위요인이 추출되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추출된 2개의 하위요인은 회피, 거절로 분류되었고 각 요인별로 속한 문항들 모두 원척도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추출된 2요인은 전체변량의 38.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별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2요인 모형에서 적절한 적합도 지수로 나타났다.

둘째, 교차타당도 검증을 위한 확인적 요인 분석을 위해 역문항 간 오차 공분산을 포함시켜주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 1번 문항의 요인 계수가 .12로 낮았고 일부 적합도 지수가 다소 낮게 나타났다. 잠재변인을 구인하는 측정변인의 수가 증가할수록 적합도 지수가 작아질 수 있으며(Nasser & Takahashi, 2003; Tanaka, 1993) RMSEA가 수용 가능한 수준임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는 2개의 애착 전략으로 자료를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셋째, 슈퍼바이지 애착 전략 척도(SASS)의 전체 내적 일치도는 .87로 나타나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하위요인별 내적 일치도를 살펴보면 회피 .87, 거절 .84로 나타나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선행 연구에 근거해 이해타당도를 확인한 결과 슈퍼바이지 애착 전략 척도(SASS)의 하위요인 간에는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위요인 회피와 거절이 상관관계수 .26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의 결과에서 하위요인 간 상관관계수가 .30인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Menefee et al., 2014). 이는 SASS의 하위요인들이 서로 동질적이면서도 어느 정도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하여(문수백, 2003)

성인 애착의 다른 두 영역을 측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섯째, 공인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슈퍼바이지 애착 전략 척도(SASS)의 하위요인과 작업동맹 척도(WAI-T), 슈퍼비전 만족도 척도(SSQ)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슈퍼바이지 애착 전략 척도(SASS)의 하위요인인 회피, 거절 모두 작업동맹 척도(WAI-T), 슈퍼비전 만족도 척도(SSQ)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원척도(Menefee et al., 2014)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여섯째, 수렴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슈퍼바이지 애착 전략 척도(SASS)의 두 하위요인과 친밀관계 경험 척도(ECR) 및 역할갈등 역할모호 척도(RCRAI)의 하위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슈퍼바이지 애착 전략 척도(SASS)의 하위요인인 회피, 거절 모두 역할갈등 역할모호 척도(RCRAI)의 두 하위요인과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슈퍼바이지 애착 전략 척도(SASS)의 하위요인 회피가 친밀관계 경험 척도(ECR)의 하위요인 회피와만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지만, 거절은 친밀관계 경험 척도(ECR)의 하위요인 회피와 불안 모두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슈퍼바이지 애착 전략 척도(SASS)의 수렴타당도에 대한 지지적 증거를 제공한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들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슈퍼바이지 애착 전략 척도(SASS)의 하위요인수가 원척도와 동일한 2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최근 성인 애착을 두 가지 차원으로 설명하는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Brennan et al., 1998; Gunn & Pistole, 2012). 즉, 성인 애착은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것처럼 가족, 연인과 같은 일반적인

친밀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슈퍼비전과 같은 특수한 맥락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개념임을 확인하였다(Pistole & Watkins, 1995; Watkins, 1995; White & Queener, 2003). 특히 슈퍼바이저 애착 전략 척도(SASS)에서 하위요인이 거절과 회피로 구분된 것에 대해 Menefee 등(2014)의 원문에서는 그 이유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연구자가 성인 애착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을 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이 추론해볼 수 있다. 먼저 거절 애착 전략은 Bartholomew와 Horowitz(1991)가 제안한 애착 유형 중 '몰두된 유형(preoccupied)'과 유사하다. 이 유형은 타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자신에 대해서는 무가치하게 평가하는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자신감이나 자존감 수준은 낮지만 타인에 대한 의존은 반대로 높다. 슈퍼바이저 애착 전략 척도(SASS)에서 거절 애착 전략을 구성하는 문항을 살펴보면, "나는 슈퍼바이저가 나를 거절할까봐 걱정한다", "나는 나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다고 느끼는지 슈퍼바이저가 알아차릴까봐 걱정한다"와 같이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나는 슈퍼바이저가 나를 좋아하는지 여부를 확실히 알고 싶다"와 같이 의존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수반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회피 애착 전략은 Bartholomew와 Horowitz(1991)가 제안한 애착 유형 중 '거부적인 유형(dismissing)'과 유사하다. 이 유형은 타인은 신뢰할 수 없고 거부하지만 자신은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긴다. 슈퍼바이저 애착 전략 척도(SASS)에서 회피 애착 전략을 구성하는 문항을 살펴보면, "나는 슈퍼바이저가 언제든지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는다.(역채점)", "나는 내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 슈퍼바이저를 의지하는 것이 어렵다", 와 같이 슈퍼바이저를 의지하지 못하고 부정적으

로 인식하는 측면이 반영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슈퍼비전 상황에 연결시키면 슈퍼바이저는 슈퍼바이저에게 도움을 받고자 하지만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여 '거절'하거나, 슈퍼바이저를 의지하지 못하여 '회피'하는 애착 전략을 사용할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슈퍼바이저의 애착 전략을 파악하는데 본 연구에서 타당화한 슈퍼바이저 애착 전략 척도(SASS)가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슈퍼바이저 애착 전략 척도(SASS)의 하위요인 중 회피가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척도(Menefee et al., 2014)의 연구결과와도 동일하다. 선행연구에서 슈퍼바이저는 슈퍼바이저에게 자신을 개방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고 나타났다(Ladany & Walker, 2003). 특히 슈퍼바이저는 부정적인 슈퍼비전을 받을 경우 슈퍼비전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을 염려하여 자신을 개방하지 않는다(Mehr, Ladany, & Caskey, 2010; Yourman & Farber, 1996).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통해 추측가능한 점은 슈퍼바이저는 회피 애착 전략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슈퍼비전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낄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회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더욱이 슈퍼바이저가 회피 애착 전략을 사용할 경우 슈퍼비전에 대한 불만이나 요구사항을 언급하기보다는 숨기고, 수련 받을 기회를 찾기보다는 회피하는 등의 행동을 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게 된다(Ladany et al., 1996; Pistole & Fitch, 2008). 슈퍼비전에서 자신의 부족함과 실수를 자발적으로 드러내면서 상담에 대한 유능성도 보여야 하는 슈퍼비전의 특성 상(Lizzo, Stokes, & Wilson, 2005) 슈퍼바이저가 느끼는 불안 등의 정서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슈퍼비전 관계

에서는 슈퍼바이지가 알아야 하는 중요한 정보들을 슈퍼바이지가 감춤으로서 슈퍼비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만든다(윤소영, 2006; Ladany, 2002). 이는 슈퍼바이지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는 회피전략을 사용하는 슈퍼바이지의 애착을 파악하여 이에 따른 슈퍼비전 접근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슈퍼비전 과정에서 슈퍼바이저는 슈퍼바이지의 애착 전략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셋째,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1번 문항의 요인계수가 .12로 낮게 나타났다. 확인적 요인 분석에서 1번 문항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면 대다수 "나는 의지할 수 있는 경험자로서 슈퍼바이저를 찾는다."에서 "가끔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에 각각 24.6%, 51.8%, 14%로 총 90.4%가 반응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1번 문항이 회피 요인을 잡아내지 못하는 이유는 회피 요인과는 무관하게 슈퍼바이저에게 도움을 받고자 하는 슈퍼바이저들의 전반적인 욕구가 반영된 결과로 추측된다. 이러한 점은 본 연구의 주된 대상이 주로 석사학위 소지자이고 대부분 5년 미만의 초보 상담자인 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수현, 김봉환(2009)은 슈퍼바이저의 전문가적인 특성에 대한 기대가 가장 높은 대상이 2급 자격을 소지한 슈퍼바이저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는 학비와는 별도로 수련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슈퍼바이저들은 슈퍼바이저의 전문성에 더욱 민감한 것으로 보인다(이수현, 김봉환, 2009). 따라서 이러한 측면이 본 연구에서도 반영되어 도움을 받고자 하는 슈퍼바이저의 욕구가 회피 애착 전략과는 상관없이 1번 문항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도록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된다.

넷째, 슈퍼바이지 애착 전략 척도(SASS) 하위요인과 작업동맹 척도(WAI-T)와는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력적인 슈퍼비전 관계가 슈퍼바이저의 성장뿐만 아니라 상담결과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진 점을 고려할 때(Bordin, 1983; Holloway, 1992; Holloway & Neufeldt, 1995; Horvath, Del Re, Flückiger, & Symonds, 2011; Lambert & Barley, 2001; Lainas, 2014) 슈퍼바이저의 애착 전략이 작업동맹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러 선행 연구에서 슈퍼바이저의 안정 애착이 슈퍼비전에 대한 만족도를 강하게 예측하며 슈퍼비전 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한다고 했다(Epps, 1999; Pistole & Watkins, 1995; Watkins, 1995). 본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애착 전략과 작업동맹 및 슈퍼비전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타당화한 슈퍼바이지 애착 전략 척도(SASS)가 긍정적인 작업동맹을 형성하도록 돕는데 활용될 수 있음을 추론해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타당화된 슈퍼바이지 애착 전략 척도(SASS)가 원 논문과 동일하게 2개의 하위요인이 추출되고 내적 일치도가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슈퍼바이지 애착 전략 척도(SASS)를 통해 국내에서 슈퍼바이저의 애착 전략을 타당하고 신뢰롭게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슈퍼비전 관계에서 슈퍼바이저의 애착 전략을 측정하고 그에 따른 대처가 가능할 수 있게 된다(Foster et al., 2007).

둘째, 슈퍼바이지 애착 전략 척도(SASS)의 각 하위요인이 독립적으로 애착 전략을 설명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슈퍼바이저의 각각의 애착 전략에 따른 슈퍼비전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슈퍼바이지 애착 전략 척도(SASS)를 통해 슈퍼바이지가 부적절한 애착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면 이를 확인하고 회피나 거절 전략을 사용하는 슈퍼바이지에게 전략에 따라 적절한 슈퍼비전 개입이 가능해질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슈퍼바이지는 상담자로서의 성장이 낮다고 언급한 것(Foster et al., 2007)을 고려할 때 슈퍼바이지의 불안정 애착을 식별하는 슈퍼바이지 애착 전략 척도(SASS)가 슈퍼비전 과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국내 슈퍼비전 문화가 슈퍼바이지의 애착 전략에 맞춰서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 슈퍼바이지들은 부정적 정서 표현을 꺼려하며 권위자에 대해 순종적인 태도를 지닌 우리나라 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슈퍼바이저와의 슈퍼비전 관계에서 서구 슈퍼바이지들보다 더 불안해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기를 주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Shim, 2002). 이러한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슈퍼바이저에게 거절당할까봐 걱정하고 두려워하여 슈퍼바이지가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기 어려울 것으로 추측된다. 더욱이 현재 국내에서는 외국에서 개발된 슈퍼비전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국내 문화에 맞는 슈퍼비전 모델의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한국형 슈퍼비전 모델을 개발할 때 우리나라의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슈퍼바이지의 주 애착 전략이 반영된 슈퍼비전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면 슈퍼바이지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결과에 대한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대상자의 성별의 비율에서 여성 비율(85.9%)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결과가 성비 불균형에 따른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

둘째, 슈퍼바이지 애착 전략 척도(SASS)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사용된 척도들의 결측치가 다소 많았다. 주로 역할갈등 역할모호 척도(RCRAI)가 다른 척도에 비해 결측치가 많이 발생하였다. 응답자들 대부분이 해당 척도의 문항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응답한 것을 볼 때, 추후 연구에서는 역할갈등 역할모호 척도(RCRAI) 문항의 재번역 및 타당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확인적 요인 분석에서 나타난 1번 문항의 계수가 낮았다. 따라서 후속연구를 통해 본 연구와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추가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현재 슈퍼비전을 받고 있는 수련생이나 상담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나 표본크기가 228명에 그쳤다. 연구 대상에 부합하는 상담자를 더 표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기에 충분한 표본수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표본을 충분히 수집하여 안정적인 모수추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섯째, 연구 대상이 주로 석사학위 소지자이고 대부분 5년 미만의 초보 상담자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박사학위 소지자 및 5년 이상의 대상들을 더 표집하여 경력 및 학위에 따른 차이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참고문헌

- 김동민 (2012). 음악치료 집단 슈퍼비전에서 슈퍼바이지가 지각하는 애착유형, 자기효능감, 정서적 유대, 수치심, 평가불안 간의 관계. 한국음악치료학회, 14(2), 1-27.
- 김성현 (2004). 친밀 관계 경험 검사 개정판 타당화 연구: 확증적 요인분석과 문항 반응

- 이론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문수백 (2003). 학위논문작성을 위한 연구방법의 실제. 서울: 학지사.
- 박진희, 유미숙 (2011). 슈퍼바이저의 성인 애착이 놀이치료 슈퍼비전 과정에서 자기개방에 미치는 영향: 작업동맹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2(1), 129-142.
- 손은정, 유성경, 강지연, 임영선 (2006). 슈퍼비전 작업 동맹과 상담자 경력 수준이 역할 어려움과 슈퍼비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4), 695-711.
- 손은정, 유성경, 심혜원 (2003). 상담자의 자기성찰(reflection)과 전문성 발달. *상담학연구*, 4(3), 367-380.
- 엄명용, 조성우 (2005). 사회복지실천과 척도개발. 서울: 학지사.
- 윤소영 (2006). 놀이치료자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슈퍼비전에서의 개방.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수현, 김봉환 (2009). 슈퍼비전 기대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2), 417-437.
- 지승희, 주영아, 김영혜 (2014). 슈퍼비전 경험과 되고 싶은 슈퍼바이저 상에 관한 탐색적 연구. *상담학연구*, 15(5), 1671-1693.
- 최수미, 조영일 (2013). 부정문항이 포함된 척도의 요인구조 및 방법효과 검증과 남녀간의 차이 비교: Rosenberg 자기존중감 척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2(3), 571-589.
- 최한나, 김창대 (2008). 좋은 슈퍼비전 관계에 대한 슈퍼바이저의 인식 차원.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1), 1-21.
- 한국상담심리학회 (2013). *상담심리사 수련과정 시행세칙*. 학회회칙.
- 한국상담학회 (2015). *전문상담사 자격규정*. 학회규정집.
- 홍지영 (2008). 슈퍼바이저 스타일이 슈퍼비전 작업동맹과 슈퍼비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9(4), 1489-1504.
- Aasheim, L. L. (2012). *Practical Clinical Supervision for Counselors: An Experiential Guide*. New York, NY: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Ainsworth, M. D. S., Blehar, M. C., Waters, E., &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J: Erlbaum.
- Bahrack, A. (1989). *Role induction for counselor trainees: effects on the supervisory working alliance*. (Electronic Thesis or Dissertation). Retrieved from <https://etd.ohiolink.edu/>
- Baldwin, M. W., Keelan, J. P., Fehr, B., Enns, V., & Koh-Rangarajoo, E. (1996). Social-cognitive conceptualization of attachment working models: Availability and accessibility effec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1), 94-109.
- Bartholomew, K., & Horowitz, L. M. (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2), 226-244.
- Bennett, S., BrintzenhofeSzoc, K., Mohr, J., & Saks, L. V. (2008). General and supervision-specific attachment styles: Relations to student perceptions of field supervisors. *Journal of Social Work Education*, 44(2), 75-94.
- Bernard, J. M., & Goodyear, R. K. (2004). *Fundamentals of clinical supervision* (3rd ed.).

- Boston, MA: Pearson.
- Biddle, B. J. (1979). *Role theory: Expectations, identities, and behaviors*. New York, NY: Academic Press.
- Bordin, E. S. (1983). A working alliance based model of supervision. *The Counseling Psychologist*, 11(1), 35-42.
- Bowlby, J. (1988). *A secure base*. New York, NY: Basic Books.
- Bradley, L. J., & Ladany, N. (2001). *Counselor supervision: Principles, process, and practice* (3rd ed.). New York, NY: Routledge.
- Brennan, K. A., Clark, C. L., & Shaver, P. L. (1998). Self-report measurement of adult attachment: An integrative overview. In J. A. Simpson & W. S. Rholes (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 (pp. 46-76). New York, NY: The Guilford Press.
- Chen, E. C., & Mallinckrodt, B. (2002). Attachment, group attraction, and self-other agreement in interpersonal circumplex problems and perceptions of group members. *Group Dynamics: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4(4), 311-324.
- Efstation, J. F., Patton, M. J., & Kardash, C. M. (1990). Measuring the working alliance in counselor supervis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7(3), 322-329.
- Ellis, M. V. (1991). Critical incidents in clinical supervision and in supervisor supervision: Assessing supervisory issu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3), 342-349.
- Epps, A. M. (1999). *The Effect of attachment styles on the working alliance in counselor supervision*. (Doctoral dissertation). Retrieved from ProQuest Dissertations and Theses database (UMI No. 9949285).
- Fisher, B. (1989). Differences between supervision of beginning and advanced therapists: Hogan's hypothesis empirically revisited. *The Clinical Supervisor*, 7(1), 57-74.
- Foster, J. T., Lichtenberg, J. W., & Peyton, V. (2007). The supervisory attachment relationship as a predictor of the professional development of the supervisee. *Psychotherapy Research*, 17(3), 343-350.
- Friedlander, M. L., Keller, K. E., Peca-Baker, T. A., & Oik, M. E. (1986). Effects of role conflict on counselor trainees' self-statements, anxiety level, and performan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3(1), 73-77.
- Gunn, J. E., & Pistole, M. C. (2012). Trainee supervisor attachment: explaining the alliance and disclosure in supervision. *Training and Education in Professional Psychology*, 4(4), 229-237.
- Hamilton, C. E. (2000).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of attachment from infancy through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71(3), 690-694.
- Hazan, C., & Shaver, P.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3), 511-524.
- Holloway, E. L. (1987). Developmental models of supervision: Is it development?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18(3), 138-140.
- Holloway, E. L. (1995). *Clinical supervision: A systems approach*. Thousand Oaks, CA: Sage

- Publications.
- Holloway, E. L. (1992). Supervision: A way of teaching and learning. In S. D. Brown & R. W. Lent (Eds.), *Handbook of counseling psychology*. (pp. 177-214). New York, NY: Wiley.
- Holloway, E. L., & Neufeldt, S. A. (1995). Supervision: Its contributions to treatment efficac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3*(2), 207-213.
- Horvath, A. O., Del Re, A. C., Flückiger, C., & Symonds, D. (2011). Alliance in individual psychotherapy.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Practice, Training, 48*(1), 9-16.
- Kirkpatrick, L. A., & Hazan, C. (1994). Attachment styles and close relationships: a four-year prospective study. *Personal Relationships, 1*(2), 123-142.
- Ladany, N. (2002). Psychotherapy supervision; How dressed is the emperor, *Psychotherapy Bulletin, 37*, 14-18.
- Ladany, N., & Friedlander, M. L. (1995).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upervisory working alliance and trainees' experience of role conflict and role ambiguity. *Counselor Education & Supervision, 34*(3), 220-231.
- Ladany, N., Friedlander, M. L., & Nelson, M. L. (2005). *Critical events in psychotherapy supervision: An interpersonal approach*.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Ladany, N., Hill, C. E., Corbett, M. M., & Nutt, E. A. (1996). The nature, extent, and importance of what psychotherapy trainees do not disclose to their supervisor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3*(1), 10-24.
- Ladany, N., & Walker, J. A. (2003). Supervisor self-disclosure: Balancing the uncontrollable narcissist with the indomitable altruist.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9*(5), 611-621
- Lainas, H. L. (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supervisory working alliance and supervisees' client outcomes* (Doctoral dissertation). Retrieved from ProQuest Dissertations and Theses database. (UMI No. 3685810).
- Lambert, M., & Barley, D. (2001). Research summary on the therapeutic relationship and psychotherapy outcome.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Practice, Training, 38*(4), 357-361.
- Larsen, D. L., Attkisson, C. C., Hargreaves, W. A., & Nguyen, T. D. (1979). Assessment of client/patient satisfaction: Development of a general scale.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2*(3), 197-207.
- Lizzo, A., Strokes, L., & Wilson, K. (2005). Approaches to learning in professional supervision: Supervisee perceptions of processes and outcome. *Studies in Continuing Education, 27*(3), 239-256.
- Mehr, K., Ladany, N., & Caskie, G. (2010). Trainee nondisclosure in supervision: What are they not telling you? *Counseling & Psychotherapy Research, 10*(2), 103-113.
- Menefee, D. S., Day, S. X., Lopez, F. G., & McPherson, R. H. (2014). Preliminary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upervisee attachment strategies scales(SA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1*(2), 232-240.
- Nasser, F., & Takahashi, T. (2003). The effect of using item parcels on ad goodness-of-fit indexes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

- example using Sarason's reactions to tests. *Applied Measurement in Education*, 16(1), 75-97.
- Neswald-McCalip, R. (2001). Development of the secure counselor: case examples supporting Pistole & Watkins's(1995) discussion of attachment theory in counseling supervision.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41(1), 18-27.
- Olk, M., & Friedlander, M. L. (1992). Trainees' experiences of role conflict and role ambiguity in supervisory relationship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9(3), 389-397.
- Pistole, M. C., & Fitch, J. C. (2008). Attachment theory in supervision: A critical incident experience.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47(3), 193-205.
- Pistole, M. C., & Watkins, C. E. (1995). Attachment theory, counseling process, and supervision.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3(3), 457-478.
- Riggs, S. A., & Bretz, K. M. (2006). Attachment processes in the supervisory relationship: An exploratory investigation.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37(5), 558-566.
- Ronnestad, M. H., & Skovholt, T. M. (1993). Supervision of beginning and advanced graduate students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1(4), 396-405.
- Shim, S. S. (2002). Cultural landscapes of pastoral counseling in Asia: The case of Korea with a supervisory perspective. *American Journal of Pastoral Counseling*, 5(1), 77-97.
- Skovholt, T. M., & Ronnestad, M. H. (1992). Themes in therapist and counselor development.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0(4), 505-515.
- Stoltenberg, C. D., & Delworth, U. (1987). *Supervising counselors and therapists: A developmental perspective*.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Tabachnick, B. G., & Fidell, L. S. (2001). *Multivariate statistics*. Needham Heights, MA: Allyn.
- Tanaka, S. J. (1993). Multifaceted conceptions of fit in structural equation model. In K. A. Bollen & S. J.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 (pp. 10-39). Newbury Park, CA: Sage.
- Ward, C. C., & House, R. M. (1998). Counseling supervision: A reflective model. *Counselor Education & Supervision*, 38(1), 23-33.
- Watkins, C. E. (1995). Pathological attachment styles in psychotherapy supervision. *Psychotherapy*, 32(2), 333-340.
- Watkins, C. E. (1998). Psychotherapy supervision in the 21st century: Some pressing needs and impressing possibilities. *Journal of Psychotherapy Practice and Research*, 7(2), 93-101.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pp. 56-75). Newbury Park, CA: Sage.
- White, V. E., & Queener, J. (2003). Supervisor and supervisee attachments and social provisions related to the supervisory working alliance. *Counselor Education & Supervision*, 42(3), 203-218.

- Wiley, M. O., & Ray, P. B. (1986). Counseling supervision by developmental leve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3*(4), 439-445.
- Worthen, V., & McNeill, B. W. (1996). A phenomenological investigation of "good" supervision ev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3*(1), 25-34.
- Yourman, D. B., & Farber, B. A. (1996). Nondisclosure and distortion in psychotherapy supervision. *Psychotherapy, 33*(4), 567-575.

원 고 접 수 일 : 2016. 04. 12

수정원고접수일 : 2016. 07. 11

게 재 결 정 일 : 2016. 07. 25

A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Supervisee Attachment Strategies Scale

Shin, Sung-Man¹⁾ Park, Yeonggeun¹⁾ Kim, Yoonhee²⁾ Park, Myung-Jun¹⁾

¹⁾Handong Global University

²⁾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verify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Supervisee Attachment Strategies Scale (SASS; Menefee, Day, Lopez, & McPherson, 2014) to measure supervisee's adult attachment toward supervisor. 22 items of the original scale were translated from English to Korean. Data include 228 counselors who have received supervision at least three times in the last 2 years from more than one supervisor as well as counselors currently under supervision. In addition to correlation analysis, exploratory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ere conducted to confirm factor structure property, reliability, and validity. Results showed the extraction of two sub-factors: Avoidance and Rejection, and showed proper Cronbach's alpha. SASS showed negative correlation with WAI-T and SSQ and positive correlation with RCRAI and ECR, which confirms the significant concurrent validity and convergent validity of SASS. Each sub-factor of SASS independently explained supervisee's adult attachment.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were discussed.

Key words : Supervision, Supervisor, Supervisee, Attachment strategies, SASS